

<1번>

(가)의 아이히만과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비교할 때, 아킬레우스는 공감을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공감은 두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타인의 감정 혹은 신체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과 두번째로, 그 인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대하여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뤼카온의 정신 상태를 인식한다. 그리고 그 기피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본다. 이런 아킬레우스의 공감은 '왜 그렇게 비탄에 빠져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데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킬레우스의 저 말은 뤼카온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봤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공감한 것이다.

반면, (가)의 아이히만과 (나)의 시적 화자는 공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우선 (가)의 아이히만은 첫번째 조건인 타인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졌을 감정 혹은 신체적 상태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신의 책임을 국가를 핑계로 항변하는 아이히만의 태도는 국가를 핑계로 공감하지 않으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첫번째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두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시적 화자는 포스터 속에 갇힌 비둘기가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둘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신에게까지 끌어오지는 못하였다.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보고 불쌍하다고 느끼고, 죽지 못해 탈이라고 하는 등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긴 하지만 감정의 주체 자신으로 바꿔보지는 못한 것이다.

<2번>

공감은 일반적으로 폭력을 수반한다. 이 주장은 특정사람의 감정을 타인이 완전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감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타인의 감정인식과 그 감정의 자기화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상상' 해서 인식해야 하고, 그 감정의 '주체'를 자기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필요조건들에서 공감의 폭력성이 드러난다. 공감의 폭력성은 조건의 충족 단계에 따라 네가지 경우에서 드러난다.

첫번째로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데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폭력이다. (가)의 아이히만이 이 폭력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감정을 상상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아이히만은 일차적으로 무시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것은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폭력으로 이어졌다.

두번째로 상상의 실패에서 오는 폭력이다. 이 종류의 폭력은 대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하는 자기 생각의 위압적인 모습에서 드러난다. 오해로 인한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라)의 박사 또한 사례이다. 용서라는 선한 가치를 실현한 것과는 별개로, 박사는 살인자들의 감정을 멋대로 상상하는 폭력을 드러냈다. 자신의 생각을 위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주체 설정의 실패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타인의 감정의 주체에 자신을 대입시키지 않을 경우, 방관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화자같이 타인의 감정은 인식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공감은 하지만 주체를 자신으로 바꿔봤을때,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경우, 타인을 무시하는 데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의 아킬레우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뤼카온에 공감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의 충돌로 인해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경우들은 공감에 있어 폭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을 이해하고 풀어줬을 경우 폭력성이 없다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제시한 전제를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번째 경우의 폭력은 배제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